

■ 상록탑 비교는 나의 힘



박하경 자치행정팀 취재부장

5일 동안 강연자 9명의 강연을 듣고 4차례의 청년 토의에 참가했다. 화려한 스펙은 고사하고, 벌써 대학생 3년 차임에도 학보 기자 외에는 이렇다 할 활동을 한 기억이 없는 게으른 내겐 엄청난 시도였다. 오후를 가장 무더웠던 오후에 축 늘어진 나와는 달리 열의 넘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노트북 화면 너머로 바라보고 있자니, 오만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청년을 대상으로 8월 2일부터 5일간 진행된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제는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부 주제의 강연이 진행된 후 토의가 이어졌다. 명문대 교수는 물론이고 의료 봉사 단체 대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소셜벤처의 팀장 등 다양한 인물이 강연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가치에 대해 되짚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다만 황금 같은 방학에, 매일 3시간씩이나 투자해야 하는 이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봤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해 관심이 많아 서였나?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였나?

결론은 '둘 다 아니다'였다. 물론 해당 주제에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방학 중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줄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를 결정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대외 활동을 소개해주는 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공고를 처음 봤을 때, 유익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선뜻 신청할 생각은 못 했다. 그러나 며칠 후 한 친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그 친구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프로그램 공고를 찾아 정독했고 단숨에 신청 버튼을 눌렀다. 이상하게도 갑자기 프로그램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강연과 토의가 기다려졌다.

이런 내 사고 회로의 기저에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습성이 깔려있다. '채는 이런 것도 하네, 난 이런 거 참여해본 적 없는데.' '남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이 한때는 스트레스의 근원인 적도 있었다. 미래를 위해 해 놓은 것이 없다는 불안은 커져만 갔다. 불안해할 시간에 책 한 권이

라도 더 읽는 다거나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마침내 나오는 결론은 어리석게도 '무기력해지기'. 비효율의 극치다.

생각의 굴레로부터 나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건 의외로 어렵지 않았다. '난 이런 거 참여해본 적 없는데'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 '난 뭐 하고 싶었지, 한심해?'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 볼까?'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타인과 나에 대한 비교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대신, 막연히 살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지표로 보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비교를 멈추지 않는 내 습성은 달리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어찌 보면 지독한 자기합리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성취고 위안이다.

사람들은 종종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한다. 그렇다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지만 난 나야로 일관해야 하는 걸까? 그러다 잘 풀리면 심지 굳은 사람, 안 풀리면 황소고집되는 건 아닐까.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자아성찰의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다시 프로그램 이야기로 돌아가서, 친구와 나를 비교함으로써 얻어낸 프로그램은 또 다시 비교의 기회를 줬다. 강연자들과 토의 발언자들은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들의 위치를 모아 놓은 지도를 만든 이도 있었고,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동아리를 만든 이도 있었다. 시도할 생각조차 못 했던 것들이다.

'저들은 이 문제에 참 관심도 많고 실천도 열심히 하네'의 다음 단계가 '난 여태 잘못 살았어'가 되면 안 된다. '나도 작은 것부터 노력해 볼까?'로 관점을 바꾸니 자연스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주변 어른들께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즐겨 마시던 커피 대신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기도 했다. 비록 이 프로그램의 토의에서는 한마디도 못 했지만, '비교 후 실천'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관련 대화에서 당당히 몇 마디 얻을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이다.

무더위의 끝이 보이는 요즘, 여전히 꽤 무미건조하고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와중에도 내게 새로이 추진력을 줄, 실낱같은 무언가를 붙잡아 보려 한다. 잘난 이와 나를 비교하다가 한번, 그와 나를 비교하는 내 모습이 싫어서 두 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너무 손해다. '비교하는 나'를 부정하는 대신, 비교를 원동력 삼기로 했다. 이제, 매일 아침 운동하는 엄마를 보고 등롱한 필라테스 학원으로 발을 옮긴다.

■ from 편집국 독자와 기자라는 필수조건



김단인 편집국장

안녕하세요. 이대학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기 전인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대학보는 이번 졸업을 맞아 졸업호 신문을 내기 위해 마감을 했습니다. 바쁜 일주일이 흘러갔네요.

마감 전, 학보는 기존 기자들과 함께 106기

신입 기자를 선발했고 새로운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감은 제가 편집국장인 뒤 후 첫 번째로 맡게 된 마감이었습니다. 처음은 항상 설레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하반기 첫 호를 발행하기 위해 기자들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며 기사를 작성하며 바쁘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학보 국장 후보 자리에서 저희 기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좌시하지 않고 학보 기자들을 독려해 최선의 기사를 쓰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내 사건을 직접 알아보는 것도, 인터뷰할 취재원을 알아보는 일도 기자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획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기사의 주제를 수정하기도 하고 원하는 자료를 얻어내는 일도 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려 허락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쉽지 않은 글을 쓰는 기자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결정하는 국장의 자리도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저희 기자들은 일주일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같이 달리는 기자들이 있어 흔들리지 않고 신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만 존재한다고 해서 신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들이 있어야 신문이 비로소 완성되죠. 읽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신문이 완벽해집니다.

신문을 만드는 데 있어 독자와 학보 기자들은 필수조건입니다. 독자와 기자가 함께 존재하기에 계속해서 신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저희 기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론광장 어른의 조건 두 가지

황미선 커마-18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조건 첫째, 책임감.

나이가 들수록(그래봤자 아직 20대 초반으로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 물론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이때 얼마나 성숙한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어른답냐, 어른답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것 같다. 누가 봐도 잘못의 주체가 명확한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런데 이런 막무가내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았고, 부끄럽게도 나를 돌아보거나 또한 종종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왜 어려울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보다 회피하고 변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

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책임감.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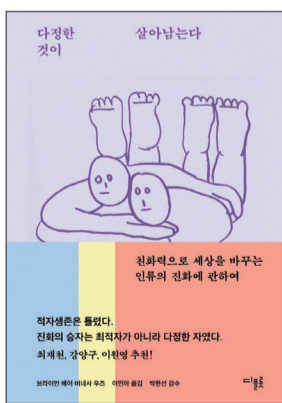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조건 둘째, 주체적인 태도.

『미움받을 용기』는 내가 인상 깊게 읽은 책 중 하나이다. 한때 베스트 셀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제목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다. 그냥 용기가 아닌 '미움받을' 용기는 어떤 용기를 뜻하는 건지 궁금해서 읽었던 책이다. 이 책에서는 타인의 기대에 맞춘 삶을 살지 말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를 부정하라고 조언한다. 책을 다 읽고 생각해보니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었다. 그들에게 좋은 후배, 좋은 친구, 좋은 선배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나를 꾸미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봐 줄지 고민도 했던 것 같다. 주체적인 나의 모

습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맞춘 나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되어 왔다. 내가 이런 행동, 말을 하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같은 염양이 없는 고민을 종종 하곤 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주체적이지 못한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사실 아직도 어렵다. 그래서 더욱 주체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어른처럼 느껴진다.

어른이 된다는 건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 일 같다.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연습.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연습. 이론은 알라도 실천은 어렵다고 했던가. 어른이 된다는 건 아마 많은 사람에게 끊임없는 숙제가 아닐까 싶다. (지금보다도)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좀 성숙한 인간이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점차 깨닫는 중이다. 진정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 나에게만 어려운 건 아닐 것이라 스스로 위안해 보며,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닐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 금주의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헤어, 베티사우즈. 파주: 디플로, 2021

이 책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영장류나 사람 종과는 달리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원인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신체적으로 우월한 개체만이 살아남는다는 전통적인 적자생존의 논리에 맞서,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관용, 진화력을 지닌 개

체군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류와 더불어 진화력이 가장 좋은 종인 개와 보노보 원숭이의 사례를 들고 진화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가축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정함이나 진화력의 이면에 있는 이질적인 집단을 향한 혐오와 비인간화 경향에도 주목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테러,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존의 사고를 뒤엎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매우 흥미롭고, 인류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의 추천사를 쓰신 최재천 교수님의 저서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도 같이 읽기를 권합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입니다.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 금주의 책/
4층 일반자료실 155.7H222s(한)

■ Z의 시선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차례

손지현 기독-18

매일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항상 기사를 읽고 나서 댓글을 본다. 어느 날은 나의 이런 자연스러운 행위에 의문이 들었다. 나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너무나도 많은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마음 편히 댓글에 의존하여 내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생각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이런 나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난 우리가 판단을 왜 유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세상에 너무도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너무도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인식은 종종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된다. 즉, 복잡한 현재에 대

해 생각하기를 멈춘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적당히 딱딱한 책을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나는 관심을 먼 과거로 돌렸다. 역사를 공부하며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을 회고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아도 좋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 선교 장학생으로 활동하며 나는 그 착각에서 조금이나마 깨어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활동조차도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가장 먼저 오지로 뛰어가는 역할을 해오던 선교사들은 줌(ZOOM)의 접속 버튼을 눌러 그곳을 선교의 장으로 삼아야 했다. 쉽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목소리가 절실한 곳을 찾았다. 바로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미얀마였다. 곁출한 여성 민주화 활동가 7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현장의 이야기와 세계를 향한 외침을 듣는 간담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

었다.

선교 장학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선교된 것은 나왔다. 판단을 유보하던 나에게 현실을 보는 눈과 명확한 나만의 기준점이 생긴 것이다. 미얀마의 현실을 직접 들어볼수록 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질문은 바로 '어디에서 어떻게 인권이 탄압되고 있고, 이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 세력이 권력을 쥐든,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가치이자 행복의 기준은 바로 인권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미얀마, 더 먼 지구 반대편의 일들까지도 우리는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달리 말해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모두 조금씩 책임을 나누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일 것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차례이다.